

# 밀원식물 감나무

(학명 : Diospyros kaki, 감나무과)

대구대학교 자연자원대학  
교수 류 장 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붉게 물든 감이 달려있는 장면! 우리나라의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나타내는 풍경중의 하나일 것이다. 잎은 다 떨어지고 붉은 감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가을 낮의 따스한 햇볕을 쬐고 있다.

수년전 본인이 대구대학교 농과대학의 학장직을 수행하며, 이런 만추의 경치를 생각하여 학교 앞 잔디밭에 감나무 몇 그루를 심었다. 감이 익어 붉게 물들기까지는 의도대로 되었는데, 감의 수가 차츰차츰 줄어들어 감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감이 먼저 없어져 버려, 진짜 절경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감이 예뻐 누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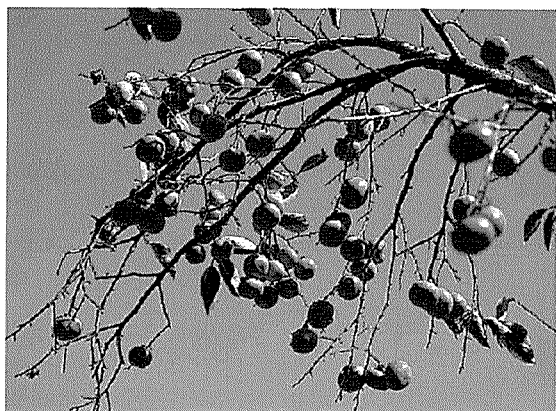
가 하나씩 따 가다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감이 하나도 없는 나무가 되어 버린다.

감나무는 경기도 이남에서 과수로 재배하고 있는 낙엽교목이며,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잎은 호생하며 혁질이고 길이 7-17cm, 너비 4-10cm로 도란형 또는 넓은 타원형이며, 첨두이거나 둔두이다. 엽저는 예저이거나 원저이고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꽃은 양성 또는 단성으로서 5-6월에 피며 화관은 병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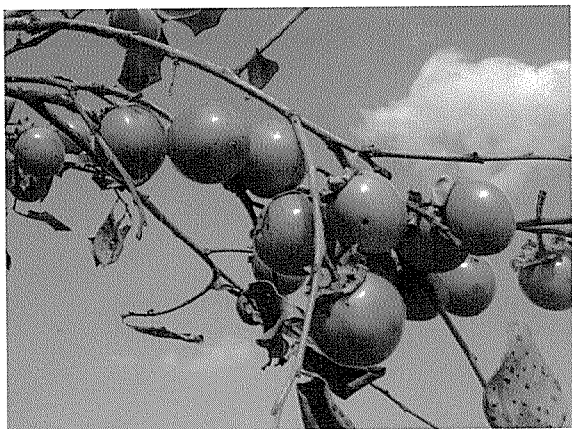
배고팠던 옛날, 무엇을 보든 '먹을 수 있는지?' 를 생각하던 시절에 감꽃은 좋은 군것거리였다. 어느 정도 먹고도 남으면 끈에 꿰어 목거리로 만들어 걸고 다니다가 먹기도 하였다. 사실 감꽃은 어느 정도 마른 것이 더 달콤하다.

열매는 난상원형 또는 편구형이고, 지름 4-8cm로서 10월에 황홍색으로 익는다. 옛날에는 시골 집집마다 감나무 한 두 그루씩은 있었고, 감은 조상의 제사상에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귀한 과일이었다. 감이 잘 익으면 홍시가 되고, 홍시는 시루떡을 찍어 먹는 단 것 역할도 하였다. 최근에는 홍시를 냉동 저장하여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 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내는 일도 생겼다. 호랑이보다 꽃감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감을 딸 때 다 따지 않고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붉은 감이 익어가는 장면! 우리나라의 가을을 가장 가을답게 나타내는 풍경중의 하나일 것이다.



돌감나무. 감보다 훨씬 작으며, 고욤보다는 훨씬 큰 돌감나무는 늦가을까지 달려 있다.

꼭대기에 있는 몇 개를 남겨두었다. 까치나 까마귀 등 날짐승들의 먹이로 남긴 것이다. ‘대지’의 저자로 유명한 필벽 여사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날짐승 먹이’ 감 이야기를 듣고 ‘한국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극찬하였다고 한다. 사실 감나무 목재는 매우 약하다. 꼭대기에 있는 감까지 다 따려고 애를 쓰면 가지가 부러져 사람이 다칠 위험이 높다. 젊은 사람이 드문 요즘은 감을 아예 따지 않고 모두 까치 몫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많은 듯하다.

경상북도 청도는 씨 없는 감으로, 상주는 꽃감으로 유명하다. 청도에서는 씨가 없다가도 그 나무를 고개 넘어 경산에 심



고욤나무 열매. 꽃도 열매도 감보다 훨씬 작지만 가지에 다닥다닥 많이 달리므로 양봉에는 고욤나무가 감나무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을 듯하다.

으면 씨가 생긴다고 한다. 그 원인을 연구해 보아야 되겠다고 준비중이었는데, 지난 해 청도농업기술센터에서 원인을 밝혔다. 청도의 감나무는 모두 암꽃만 있었다는 것이다.

감은 익기 전에는 뭉은데, 익기 전부터 단 맛이 나는 단감이 있고, 경상남도 진양 등에서 많이 재배한다. 단감나무는 추위에 약하며, 북쪽에 심으면 뭉은 감이 된다고 한다.

진양에서 단감을 재배하는 류씨(가명)는 단감농장에서 별도 기른다. 감꽃에는 꿀도, 화분도 중간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주변에 온통 단감 밭이니 꿀도 제법 생산되나 보다. 자녀들이 서울의 큰 회사에 근무하므로, 단감도 꿀도 서울의 자녀들을 통하여 직거래로 판매한다고 한다. 단감나무 밑에는 자운영을 심었고, 여름에 꽃피는 나무로 모감주나무를 몇 십본 심었다. 농장을 규모있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계셨다.

목재는 건축재, 골프채 제조에 쓰이며 열매는 약재로 쓰이고 먹을 수 있다. 고욤나무(D. lotus)의 실생묘를 대목으로 하여 봄에 절절으로 증식시킨다. 고욤나무는 꽃도 열매도 감보다 훨씬 작지만 가지에 다닥다닥 많이 달리므로 양봉에는 고욤나무가 감나무보다 더 유용할 수도 있을 듯하다. 돌감나무(D. kaki var. sylvestris)는 남부지방의 산지에 자생하며 표면의 주맥에 털이 있고 잎 뒷면에 갈색털이 밀생하며 열매는 편구형으로 감나무보다 훨씬 작다. 감을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돌감을 심으라고 권하고 싶다. 돌감은 훨씬 많이 달리며, 더 오래 나무에 다닥다닥 달려 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감나무! 우리나라의 가을을 대표하는 경관! 감나무가 집단적으로 심어진 곳에서는 감꿀도 생산될 것이고, 몇 그루 있는 곳에서도 꿀벌의 귀한 식량이 될 것이다.